

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

만중생의 생일이자 모든 생명들의 축복의 날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.

부처님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.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이웃이며 동반자입니다.

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모두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상생하는 대승적 화해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

대한불교조계종은 자성과 쇄신을 위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.

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, 남을 탓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성찰하여 종교적 가르침을 사회에 회향하며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. 수행, 문화, 생명, 나눔, 평화 등 5대 결사의 실천을 통해 한국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과 함께 더욱 밝은 광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.

우리 사부대중은 오늘을 중생구제의 큰 발심을 하는 날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